기조발제

한국 민주화운동 – 과연 성공적이었는가?

송 두 율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 교수)

한국민주화운동 - 과연 성공적이었는가?

송 두 율(독일 뮌스터대 사회학 교수)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나라밖의 이러저러한 평가를 많이 들어 왔다. 주로 〈광주항쟁〉이나 〈6월 투쟁〉이 보여준 한국민주화운동의 엄청난 도덕성과 실천력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이와는 반대로 때때로 결정적인 국면에 보여준, 이해할 수 없는 측면 - 특히 양김(兩金)의 분열이 보여준 〈지역주의〉에 지배되고있는 정치동학 - 을 한국민주화운동의 한계로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제3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보여주지 못한 경제발전을 동반한 정치발전의 모범을 창출한 동력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민족분단이라는 구조 속에서 그러한 발전을 이룩한 점에 대해서 한국민주화운동은 가령 대만의 그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증명과 반증(反證)

사실 한국전쟁이후 소극적인 자기규정으로서 〈반공〉과 간접적인 자기긍정으로서 〈친미〉가 주축을 이룬 남한사회의 정체성은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스스로도 자주 패망한 월남정도의 수준에서 평가되었다. 남한사회의 정체성문제는 역설적으로 〈유신정권〉의 성립을 가능케 했는데 북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유도 유보하는 〈경제성장〉에-비록 엄청난 저항도 있었지만 -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경제주의〉를 통한 자기 정체성의 확인이 안고 있는 문제가 여러 측면에서 이미 들어난 오늘의 시점에서도 이른바 〈박정희 신드롬〉으로 불리는 현상이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경제영역으로부터 시작된 남쪽의 자기 정체성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영역으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정체성이 정치적 영역으로도 곧 확장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서 이른바 〈신흥공업국〉이라는 새로운 정치경제학적 범주로서 70년대 말부터 OECD와 WorldBank에 의해 소개되었고 이의 선두주자로서 남한은 항상 거론되었다. 물론 이러한 이론의 뿌리는 냉전의 시작과 함께 득세한 〈근대화이론〉속에 내리고 있지만 과거 이론 전개에 나타난 약점들을 보강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국모델〉이라는 성공일화(逸話)에도 불구하고 80년 5월의 〈광주〉라는 정치적 위기에 이어 90년대 중반에는 〈IMF사태〉라는 경제적 영역에서조차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위기들은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가 단선적

(單線的)인 것이 아니라 보다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속과 불연속

〈한국모델〉이 갖는 이러한 한계상황들은 또 다시 역설적으로 김대중정부를 탄생시킨 동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와의 연속적 측면도 강했는데, 오랜 민주화투쟁의 상징적 인물에 의한 정권 접수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당간의 합종연횡(合從連衡)은 그러한 변화 중에 있는 연속성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성장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주장도 강해졌기 때문에 〈강한 국가〉에 의존한 통치형태가 한계에 봉착한 측면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중에도 특기해야만할 변화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회담〉이라는 극적인 형식은 민주화투쟁이 분단과 함께 스스로 설정한 임계선(臨界線)을 넘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연속이 반세기에 걸쳐 익숙해온 정치문화의 벽을 무너뜨릴 수 없는 한계는 곧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른바 〈대북송금특별법〉이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통과되어 후임자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햇볕정책〉도 심각한 훼손을 맞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과거 결손(缺損)된 〈법치국가〉의 조건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성장한 〈시민운동〉의 일부도 〈투명성〉이나 〈적법성〉을 요구하며 공세를 취하는 보수야당과 언론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분단〉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문제에 있어 〈정치〉가 오히려 새로운 규범을 창출할 수 있다는 단호한 〈결정주의〉보다는 〈법〉에 의존한 정치를 논거의 틀로 삼았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여야만 한다는 강박(强迫)은 기득권자들에게는 좋은 구실을 주었다. 이들은 과거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 그 멍에를 사회변혁을 유도하려는 세력에게 씌우고 있다. 이러한 전도(顚倒)는 단순히 남북관계에서만 아니라 노동, 복지, 교육, 언론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도 속으로 장정(長征)

〈국민의 정부〉로부터 시작된 〈민주화〉가 5년 더 지속된다는 현실은 기득권에게는 엄청난 박탈감과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년 뒤 또 다시 정권쟁취에 실패한다면 결국 15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생기는 셈인데 이는 상상하기조차도 싫은 극단적 상황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수정당이든지 진보정당이든지 간에 정책정당과 대중정당으로서 성장한 유럽에서는 가령 15년이라는 야당역할 후에도 다시 정권을 잡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한국처럼 인물중심으로 꾸려진 정당이 오랜 시간 뒤에 정권에 다시 복귀한다는 문제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정당의 이념과 대중적 기반이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남

남갈등〉이라고 불리고 있는 첨예한 대립이 현재 사회 각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주역을 담당했던 세력이 많이 〈참여정부〉에 참여했지만 수적으로도 열세이고 비판과 저항에서 긍정과 참여가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다. 더욱이 이른바 〈지구화〉로 표현되고 있는 새로운 관계체계는 더 넓은 안목(眼目)을 요구하고 있기에 과거보다 더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과 정세 속에서 민주화운동의 제도권진입이 쉽지는 않지만 개혁세력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구심점 구성에 광범하게 참여하는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화운동이 제도 속으로 진입해서 성공적인 개혁정책을 달성한 예는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독일의 〈녹색당〉의 경우가 종종 이야기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 보다는 더 광범한 스펙트럼이 제시되어야한다. 즉 남쪽사회의 총체적 개혁은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중장기적 해결과제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결집시키는 촉매제로 민주화운동은 제도 속에서도 지속되어야한다.

〈신자유주의〉의 피안(彼岸)

이러한 민주화운동의 제도진입은 단순히 주관적인 의도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객관적인 조건과 정세 속에서 그의 성공과 실패가 규정된다. 국내적으로는 성장촉진과 분배평등, 밖으로는 국민경제와 〈국경없는 경제〉, 그리고 민족분단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민족공조〉와 〈국제공조〉라는 지향점간의 상충(相衝)은 본질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하는 문제로 집약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이상적 모델이라고 하고 〈더 많은 지구화〉가 〈더 많은 민주주의〉로 통하는 지름길이라고 설파(說破)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심화되는 빈부격차로 민주주의는 도전 받고, 밖으로는 부국과 빈국간의 심화되는 격차로 말미암아 세계평화와 안전은 더욱 더 위협받고 있지 않는가. 과거처럼 철권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강한 국가〉가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서구보다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아직 소진되지 않은 조건에서 이의 역동적 역할이 긍정되고, 이와 동시에 그간 성장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이러한 〈국가〉의 기능을 보완할 때 〈신자유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가 지니는 연속과 불연속이 만들어 내는 긴장을 긍정적인 힘으로 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맥락적(脈絡的)인 사회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그물사회 network society〉는 비록 아니지만, 적어도 통합적인 〈국가〉와 경쟁적인 〈시장〉사이에서 〈제 3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된 사회〉의 역할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이며, 동시에 현재진행중인 민주화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시금석(試金石)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표출하는 이

념은 일본의 이른바 〈창조적 보수주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연속과 불연속 속에서 부침(浮沈)하고 있는 한국의 강렬한 민주화운동의 현재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나는 〈보수적 진보주의〉라고 부르고 싶다.